

심리적 변수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 -30대~60대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The Preference of the Silver Town based on the Psychological Variances -Mainly about the Life Style between from 30s to 60s-

채상균,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Sang-Kyun Chai(cskyn@naver.com), Kyu-Soo Ha(ksh@hoseo.edu)

요약

본 연구에서 노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래 실버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라이프스타일이 실버타운 선호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라이프스타일과 실버타운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서울·경기지역과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30대~60대 남녀를 무작위로 설문조사하였다. 수집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1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 학력, 종교가 실버타운 선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라이프스타일 특성이 실버타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을 추구하는 보수적 라이프스타일을 지닐수록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도는 낮고, 건강을 추구하고 안전과 물질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지닐수록 실버타운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라이프스타일과 실버타운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심어 : | 실버타운 | 라이프스타일 |

Abstract

In this study, it has conducted the questionnaire in the Seoul, Gyeonggi Province and DaeGu, GyeongBuk Province among males and females from 30s to 60s randomly to consider if the socio-demographical variance and the life style will meaningfully affect the preference of the silver town among elderly consumers as well as the future silver consumers. SPSS Win Ver.18.0 was used to analyze the statistical management of the collected data. As a consequence, among the socio-demographic variances, it was analyzed that the academic ability and religions were meaningfully affecting the preference of the silver town statistically, and after assaying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fe style affects the preference of the silver town, the more the family pursues the conservative life style the lower the preference of the silver town was observed, the more the life style covets the health, safety and the materials, the higher the preference of the silver town was analyzed. In addition, it was analyzed life style and the preference of the silver town showed a difference depending on the socio-demographic variances.

■ keyword : | Silver Town | Lifestyle |

I. 서론

그동안 지속되어온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인구구조의 연령별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드러진 변화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이다, UN의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 의하면 만 65세를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7%, 14%, 20%를 기준으로 노인인구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즉,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20% 미만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라고 한다[1].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총인구를 연령별로 세우면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나타내는 중위연령(Median age)은 1960년 19세였으나, 2010년 37.9세, 2012년 39.1세로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48.5세, 2060년에는 57.9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균수명은 1960년 52.4세, 1970년 61.9세, 1980년 65.7세, 1990년 71.3세, 2000년 76.0세, 2012년 81.2세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 73만 명(2.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00년 339만 명(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2년은 589만 명(11.8%), 2020년에는 808만 명으로 15.7%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30년에는 1,269만 명(24.3%)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60년 1,762만 명(40.1%)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37만 명(0.7%)에서 2060년 448만 명(10.2%)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가 뚜렷해지면서 노인계층에 대한 국가의 복지 부담은 높아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노인부양체제는 급속히 해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화 과정이 촉진시킨 핵가족화와 자녀수 감소로 인하여 노인의 단독거주 증가현상이 심화되었고, 따라서 노인들의 영양, 보건의료, 레저 활동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주거대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5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청소년 통계'와 '최근 10년간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변화 추이'

에 따르면 '부모 부양은 가족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난 2002년 67.1%에서 2012년 36.5%로 31.5%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비중은 29.5% 포인트 증가했다[3].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주로 무연고나 무의탁 영세 저소득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최저 생계만을 유지하게끔 가장 기본적 욕구충족에 목적을 두고 설립·운영되어왔다.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에게 가정적이며 건강상태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이나 기능적인 불편함을 줄이고,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신체적·심리적으로 편안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4].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므로, 노인에 어울리는 주거 환경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지금의 예비노인들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보장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버타운에 대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다양한 트렌드 변화를 인식하고 실버타운에 대한 사업전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래 실버 소비자를 세분화하여, 30대~60대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라이프스타일이 실버타운 선호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라이프스타일과 실버타운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서울·경기지역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실버타운에 대한 미래 실버 소비자인 30대, 예비수요층은 40~50대와 실수요자인 60대를 남녀를 무작위로 설문조사하였다. 즉, 실버타운에 대한 실수요자인 60대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1963~1955년생), 포스트부머(1978~1964년생), 그리고 베이비부머의 자식세대를 일컫는 에코세대(1992~1979년생)중 30대(1983~1979년생)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기존 연구는 특정지역, 특정계층,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함으로써 지역별, 계층별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비교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서울·경기지역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30대~60대 소비자의 계층별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트렌드 변화를 인식하여 향후 실버타운사업의 전개에 따른 마케팅 전략수립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라이프스타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상품 구매에 있어 결정요인 변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지속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Sidney J. Levy[5]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다루어 라이프스타일은 많은 생활차원을 편승하는 것과 개개인이 암시하는 하위상징에의 복합 상징이다”라고 하여 개인의 자아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했다.

William Lazer[6]는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이 소비자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며 라이프스타일이란 어떤 문화나 집단의 삶의 양식을 기술하고 여타의 문화나 집단을 구분해 주는 독특한 요소 또는 특징에 관심을 두는 것이며 사회에서의 다양한 삶 속에서 발견되고 생성되는 패턴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즉, 라이프스타일이란 시장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영향을 받는 시스템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Monroe, K. B. & Guiltman, J. P.[7]은 가족의 라이프스타일 초점을 맞추어 “라이프스타일은 패턴화된 생활양식으로 가족성원이 각각의 상품과 사건, 자원을 생활양식에 맞게 적합 시켜 가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이후로 라이프스타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학자들마다 각자 관점을 달리해 사회, 개인, 가족을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정의하고 설명했다. James F. Engel, Roger D. Blackwell and David T. Kollat[8]은 라이프스타일을 사람과 생활, 시간 또는 돈을 소비하는 유형이라고

정의하고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인간 특성이며, 개인문화, 사회계층, 준거집단, 가족 등의 영향을 받아 습득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의 가치체계나 개성의 파생물”이라고 했다. 라이프스타일을 “개인의 활동(Activities), 관심(Interests), 의견(Opinions) 등에 의해 표현되는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패턴”으로 정의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전체적 개인을 묘사한 것으로 보았다.

라이프스타일이란 시스템적인 개념으로 전체사회나 세부(segment)의 집합적이고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특색 있는 생활양식(mode of life)을 뜻한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특정문화나 특정집단의 생활양식을 표현하는 독특한 구성요소와 질에 관련되며, 사회에서의 생활의 역동성에서 발전되고 출현된 패턴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문화, 가치, 자원, 상징(symbol), 인허, 제재(sanction) 등의 정형화된 결과로서 구매하는 제품, 사용하는 상징체계, 소비하는 방법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6].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정형화된 태도, 관심, 의견의 개념화이며 이렇게 정형화된 태도, 관심, 의견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면서 개인의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9].

고영준[10]은 노인층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하여 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특정적인 행동양식으로서 특정한 반응에 대한 태도, 가치 등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서 외부적인 혹은 내부적인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전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양식을 일컬어 라이프스타일이라 하였다. 광종형[11]은 라이프스타일을 외부의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이 개인의 태도나 신념, 관심 및 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형성되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생활패턴으로 사회전체나 집단, 혹은 개인의 소비 행동패턴을 설명하는 특성이라고 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노인층을 구별 짓는 라이프스타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명혜[12]는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식사생활, 취미생활, 일상생활, 종교생활, 가족관계, 동료관

계, 유료노인복지주택 선호도 등으로 구분하였다. 김완래[13]는 예비 노인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주생활요인과 문화생활요인으로 구분하여 주생활요인으로는 도시성향, 심미성향, 편리성향으로 구분하였고, 문화생활요인으로는 취미·여가형, 가족중심형, 활동적 성향으로 구분하였다. 우주택[14]은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과시성향형, 사교형, 남녀평등 추구형, 자기중심 성향형, 활동적 성향형, 정보 추구형, 매체 지향형, 알뜰 구매형, 여가 추구형, 노력형, 에너지 성향 등 11개의 요인으로 유형화하였다. 김경숙[15]은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적극생활형, 여유생활형, 신앙생활형, 가정협조형, 노후준비형, 물질소유형, 레저생활형, 건강생활형으로 구분하였다. 함영희[16]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사회지향형, 경제지향형, 유행추구형, 건강지향형, 환경지향성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최혜련[17]은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건강추구, 여가문화추구, 외향적 도전추구, 안전 및 물질추구, 보수적 가족추구, 동료관계추구, 종교 및 봉사활동 추구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각 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실버타운 입주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에 근거하고, 함영희[16], 최혜련[17]의 연구를 토대로 보수적 가족추구, 외향적 도전추구, 건강추구, 여가문화 추구, 안전 및 물질추구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실버타운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개인의 인구 통계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소비자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와 이용의사 결정이 많이 다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실버타운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명혜[18]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실버타운 입장소의 차이는 식사생활, 일상생활, 종교생활, 가족관계요인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유료노인복지주택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라이프스타일 요인은 취미생활, 동료관계, 유료노인복지주택 선호도 등이라 하였다. 김완래[19]는 예비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선호 결정요인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도 및 관여도에 대한 문화생활요인에서 취미·여가형과 활동성향형은 관여도와 선호도에서 모두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가족중심형은 선호도에서만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하였고 라이프스타일이 실버타운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도시성향, 활동적 성향, 편리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주택[20]은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용의사 결정요인에서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실버타운 이용의사는 사교형, 자기중심형, 활동형, 정보추구형, 여가추구형, 노력형일수록 실버타운 이용의사가 높다고 하였다. 김경숙[21]은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적극생활형, 여유생활형, 신앙생활형, 가정협조형, 노후준비형, 물질소유형, 레저생활형, 건강생활형 등 8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군집 분석한 결과 진취형, 태만형, 웰빙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태만형과 웰빙형은 노인복지주택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취형의 경우는 노인복지주택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실버타운에 대한 소비계층을 미래 실버 소비자인 30대, 예비수요층인 40~50대와 실수요자인 60대의 각 계층별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라이프스타일 등의 개인적 특성과 실버타운 선호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소비자의 실버타운 선호도 결정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자료를 찾아 향후 실버타운사업의 전개에 따른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연구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의 목적은 노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래

실버 소비자를 세분화하여, 30대~60대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라이프스타일이 실버타운 선호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라이프스타일과 실버타운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다음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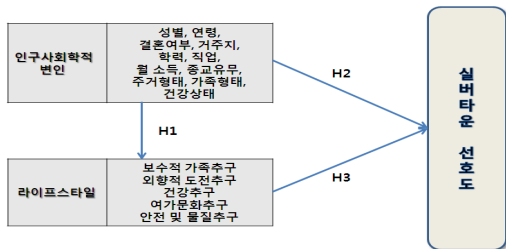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

가설 2-1. 인구사회학적변인에 따라 실버타운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실버타운 선호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라이프스타일은 실버타운 선호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표본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경기지역과 대구·경북지역의 30대~60대의 성인 남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은 무작위추출법과 자기기입방법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설문문항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예비조사기간은 2012년 7월 9일부터 2012년 7월 20일까지 12일간 이루어졌다. 본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기간은 2012년 9월 10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52일간 이루어졌다. 배포된 1,000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설

문지는 960부로서 응답률은 96%이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33부를 제외한 927부가 유효설문지였다.

3. 자료 분석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Win Ver.18.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개념변수의 타당성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직각회전인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확인하였고, 신뢰성은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통해 Cronbach's α 수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둘째, 실버타운 선호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영향관계를 조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기법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실버타운 선호도의 차이는 t검증(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scheffé test),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결혼여부,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종교유무, 주거형태, 가족형태,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에서 남성이 488명(52.6%)으로 여성 439명(47.4%)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연령은 30대가 314명(33.9%), 40대가 317명(34.2%), 50대가 171명(18.4%), 60대 이상이 125명(13.5%)이었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146명(15.7%), 기혼이 735명(79.3%), 사별/이혼이 46명(5.0%)이었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277명(29.9%), 경기도가 215명(23.2%), 대구가 387명(41.7%), 경북/기타가 48명(5.2%)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이하가 52명(5.6%), 고졸이 193명

(20.8%), 대졸이 539명(58.2%), 대학원 재학이상이 143명(15.4%)이었고, 직업은 전문직이 102명(11.0%), 회사원이 284명(30.6%), 공무원/교직원이 202명(21.8%), 자영업이 111명(12.0%), 주부/무직이 149명(16.1%), 기타가 79명(8.5%)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48명(5.2%), 100~300만원 미만이 244명(26.3%), 300~500만원 미만이 346명(37.3%), 500~700만원 미만이 175명(18.9%), 700~1,000만원 미만이 70명(7.6%), 1,000만원 이상이 44명(4.7%)이었다.

종교유무에서는 없다가 391명(42.2%), 있다가 536명(57.8%)이었고, 주거 형태는 자가 646명(69.7%), 타가가 281명(30.3%)이었으며, 가족 형태는 혼자 살고 있다가 92명(9.9%), 부부만 살고 있다가 119명(12.9%),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가 531명(57.3%),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가 105명(11.3%), 부모, 자녀 모두와 함께 살고 있다가 80명(8.6%)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나쁘다가 47명(5.1%), 보통이다가 482명(52.0%), 좋다가 336명(36.2%), 매우 좋다가 62명(6.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다수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변수들의 바탕을 이루는 공통차원을 통해 변수들을 설명하는 통계기법으로 다수의 변수들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22]. 본 연구는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회전은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요인구조가 가장 뚜렷해질 때까지 회전시키는 직각회전에 의한 베리맥스 방식(varimax rota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방법으로는 각 요인이 전체 분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고유값(eigen value)이 1.0이상인 요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카이저 규칙(kaiser rule)을 사용하였고,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량의 경우 0.5이상을 유효한 변수로 판단하였고 요인분석과정에서 제거된 항목은 없었다.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동일한 개념을 다항목으로 측

정하였을 경우에 사용하는 내적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method)에 의해 분석하였고, 측정항목의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추출된 하나의 개념에 대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한 다음 이 값이 0.6이상일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변수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총 20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고유치 1.0 이상인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들 요인은 전체 분산 중에서 총 61.76%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은 고유치 2.79, 변량 13.97%로서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가족을 돌보는 것이 좋거나 나이가 들면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족, 친지와 상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등 가족을 추구하는 보수적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수적 가족추구(5항목)'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고유치 2.75, 변량 13.75%로서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느끼거나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뿐 아니라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의 활동을 좋아하는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향적 도전추구(5항목)'라 하였다.

요인 3은 고유치 2.36, 변량 11.79%로서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식품을 섭취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거나 정기적인 운동 및 건강검진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건강추구(4항목)'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고유치 2.35, 변량 11.75%로서 취미와 여가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여가활동으로 인한 생활의 즐거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여가문화추구(3항목)'이라 하였으며, 요인 5는 고유치 2.10, 변량 10.50%로서 보다 많은 물질에 대한 소유나 재산 등의 물질적인 소유물을 중시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안전 및 물질추구(3항목)'라 명명하였다.

또한 각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보수적 가족추구 0.793, 외향적 도전추구 0.772, 건강추구 0.731, 여가문화추구 0.863, 안전 및 물질추구 0.757로서 0.70 이상을 나타내 신뢰도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 라이프스타일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Component				
		1	2	3	4	5
보수적 가족 추구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하더라도 가족을 돌보는 것이 좋다.	.762	.059	.048	.011	.033
	나이가 들면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749	.002	.061	.111	.062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족, 친지들과 상의하는 편이다.	.728	.077	.146	.051	-.010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707	.259	-.077	.030	.177
	집안의 대소사는 가족과 의논하는 것이 좋다.	.694	.203	.090	-.117	.085
외향적 도전 추구	일(직업, 봉사활동, 종교, 컴퓨터, 운전 등)을 열심히 할 때 성취감을 느낀다.	.144	.775	.101	.132	.096
	나이가 들어도 일(직업, 봉사활동, 종교, 컴퓨터, 운전 등)을 매일 할 것이다.	.129	.743	.074	.127	.164
	봉사활동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183	.700	.105	.038	-.129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	.056	.634	.129	.205	.044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	.058	.567	.215	.290	-.209
건강 추구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식품을 섭취한다.	.089	.091	.776	.103	.011
	나는 나의 건강에 관심이 많다.	.077	.259	.714	.074	.074
	건강을 위해서 운동(걷기, 조깅, 헬스, 에어로빅, 수영 등)을 하고 있다	.015	.102	.712	.253	.015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077	.057	.681	.121	-.007
여가 문화 추구	지출이 따르더라도 삶을 즐기면서 산다.	-.019	.193	.107	.840	.042
	취미 및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026	.222	.283	.827	.027
	여가활동으로 생활의 즐거움을 얻는다.	.081	.206	.207	.819	-.002
안전 및 물질 추구	보다 많은 물질(재산, 자동차, 주택 등)을 소유하고 싶다.	.155	.039	-.032	-.006	.829
	인생에서 재산(돈, 부동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4	.151	.019	-.004	.807
	사람들이 가진 물질적인 소유물(재산, 자동차, 주택 등)이 성공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012	-.147	.092	.059	.783
eigenvalue		2.79	2.75	2.36	2.35	2.10
누적 변량 %		13.97	27.72	39.51	51.26	61.76
신뢰계수		.793	.772	.731	.863	.757

2.2 실버타운 선호도

실버타운 선호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총 5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고유치 3.96, 변량 79.15%인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는 실버타운의 임대방향, 입주 및 거주방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실버타운 선호도(5항목)'이라 하였으며, 모든 항목의 요인 적재량이 0.8 이상을 보여 요인분석 과정에서 제거된 항목은 없었다. 또한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0.934로서 신뢰도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2. 실버타운 선호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구분	문항	Component
		1
실버타운 선호도	나는 실버타운을 구매(또는 임대)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905
	나는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	.905
	나는 시설이 좋은 실버타운이 있다면 그 곳에서 살기를 희망한다.	.901
	나는 노인전용주택이 있다면 입주하여 살기를 희망한다.	.890
	나는 실버전용 레저클럽이 있다면 가입하기를 희망한다.	.845
eigenvalue		3.96
누적변량 %		79.15
Cronbach's α		.934

3. 가설 검증

본 연구는 실버타운 선호도의 결정요인을 밝히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개념변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2개 이상의 독립변수와 1개의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조직적으로 분석하는 통계기법[23]으로 단순회귀분석에 비하여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이상이면 높은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23]. 본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동시입력방식에 의해 실시하였고, VIF 값을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였다.

집단 간 차이분석은 모집단의 수에 따라 통계분석방법을 달리 하는데, 모집단이 2개 이하인 경우에는 t-test를 실시하고 일원분산분석은 두 개 이상의 집단들의 평균값을 비교하는데 사용한다. t-test에서는 T검정에 의한 유의도 값이 0.05보다 작으면 모집단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일원분산분석의 검증통계량은 F이고 각 집단의 크기가 다를 경우 사후 다중비교를 위한 방법으로 scheff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요인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한 후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 모집단이 2개인 성별과 종교유무, 주거형태는 t-test를 실시하였고, 모집단이 3개 이상인 연령과 결혼여부,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가족형태, 건강상태는 ANOVA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는 요인별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보수적 가족 추구 라이프스타일 차이

표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보수적 가족추구 라이프스타일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성별	남성	488	3.85	.577	.700	.484
	여성	439	3.82	.547		
연령	30대	314	3.78 ab	.569	3.862**	.009
	40대	317	3.88 ab	.529		
	50대	171	3.76 a	.593		
	60대 이상	125	3.93 b	.568		
결혼여부	미혼	146	3.71 a	.631	4.344*	.013
	기혼	735	3.86 b	.545		
	사별/이혼	46	3.83 b	.568		
거주지	서울	277	3.89	.481	1.664	.173
	경기	215	3.83	.540		
	대구	387	3.79	.615		
	경북/기타	48	3.81	.644		
학력	중졸이하	52	3.88 a	.669	2.632*	.049
	고졸	193	3.76 ab	.626		
	대졸	539	3.83 ab	.543		
	대학원재학이상	143	3.93 b	.490		
직업	전문직	102	3.87	.531	.883	.491
	회사원	284	3.85	.556		
	공무원/교직원	202	3.83	.468		
	자영업	111	3.77	.699		
	주부/무직	149	3.88	.570		
	기타	79	3.76	.62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48	3.56 a	.711	3.654**	.003
	100-300만원	244	3.82 ab	.567		
	300-500만원	346	3.83 ab	.561		
	500-700만원	175	3.86 b	.518		
	700-1,000만원	70	3.94 b	.472		
	1,000만원 이상	44	4.00 b	.591		
종교유무	없다	391	3.71	.589	-5.475***	.000
	있다	536	3.92	.527		
주거형태	자가	646	3.87	.536	3.097**	.002
	타가	281	3.74	.611		
가족형태	혼자 살고 있다	92	3.69 a	.712	3.179*	.013
	부부만 살고 있다	119	3.91 b	.653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531	3.86 ab	.520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105	3.74 ab	.520		
	부모, 자녀 모두와 살고 있다	80	3.81 ab	.518		
건강상태	나쁘다	47	3.60 a	.611	7.346***	.000
	보통이다	482	3.82 ab	.561		
	좋다	336	3.84 bc	.513		
	매우 좋다	62	4.09 c	.700		

*p<.05, **p<.01, ***p<.001, a, b, c는 scheffé 검증결과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a(b(c)).

[표 3]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보수적 가족추구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보수적 가족추구 라이프스타일은 연령(F=3.862, p<.01)과 결혼여부(F=4.344, p<.05), 학력(F=2.632, p<.05), 월평균 가구소득(F=3.654, p<.01), 종교유무(t=-5.475, p<.001), 주거형태(t=3.097, p<.01), 가족형태(F=3.179, p<.05), 건강상태(F=7.346,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50대에 비해서 60대 이상에서 보수적 가족추구 라이프스타일의 평균값이 더 높음으로써 60대 이상인 집단이 50대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보수적 라이프스타일을 더 많이 추구함을 알 수 있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에 비하여 기혼과 사별/이혼 집단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 집단 차이가 나타났고, 학력에서는 중학교 졸업이하보다 대학원 재학이상에서 가족을 중시하는 보수적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추구하고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에 비해서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종교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보수적 가족추구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고 있었다.

주거형태에서는 자가 타가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자가인 집단이 보수적 가족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중시하였고, 가족형태의 경우 혼자 살고 있는 집단에 비해 부부만 살고 있는 집단에서 가족을 중시하는 보수적 라이프스타일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었다. 또한 건강이 나쁜 집단보다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은 집단에서 보수적 가족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더 중시하고 있었다.

3.1.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외향적 도전추구 라이프스타일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외향적 도전추구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외향적 도전추구 라이프스타일은 학력(F=13.977, p<.001), 직업(F=3.472, p<.01), 월평균 가구소득(F=8.039, p<.001), 종교유무(t=-7.870, p<.001), 주거형태(t=3.317, p<.01), 건강상태(F=16.35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중학교 졸업이하보다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집단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대학원 재학이

상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냄으로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집단이 일을 통해 성취감을 크게 느끼고 집에서 보다 밖에서의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표 4.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외향적 도전추구 라이프스타일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성별	남성	488	3.60	.632	-1.586	.113
	여성	439	3.67	.643		
연령	30대	314	3.57	.600	1.899	.128
	40대	317	3.64	.558		
	50대	171	3.71	.700		
	60대 이상	125	3.64	.805		
결혼여부	미혼	146	3.52	.602	2.505	.082
	기혼	735	3.65	.637		
	사별/이혼	46	3.64	.735		
거주지	서울	277	3.71	.572	2.477	.060
	경기	215	3.60	.675		
	대구	387	3.61	.629		
	경북/기타	48	3.48	.842		
학력	중졸이하	52	3.29 a	.916	13.977***	.000
	고졸	193	3.52 b	.677		
	대졸	539	3.64 bc	.594		
	대학원재학이상	143	3.87 c	.531		
직업	전문직	102	3.87 b	.701	3.472**	.004
	회사원	284	3.60 a	.595		
	공무원/교직원	202	3.59 a	.536		
	자영업	111	3.63 ab	.709		
	주부/무직	149	3.58 a	.673		
	기타	79	3.61 a	.71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48	3.44 a	.656	8.039***	.000
	100-300만원	244	3.47 a	.687		
	300-500만원	346	3.68 ab	.602		
	500-700만원	175	3.67 ab	.619		
	700-1,000만원	70	3.81 b	.508		
	1,000만원 이상	44	3.93 b	.622		
종교유무	없다	391	3.44	.631	-7.870***	.000
	있다	536	3.77	.608		
주거형태	자가	646	3.68	.633	3.317**	.001
	타가	281	3.53	.637		
가족형태	혼자 살고 있다	92	3.51	.637	1.560	.183
	부부만 살고 있다	119	3.57	.807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531	3.65	.599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105	3.65	.598		
	부모, 자녀 모두와 살고 있다	80	3.72	.652		
건강상태	나쁘다	47	3.37 a	.727	16.358***	.000
	보통이다	482	3.53 ab	.632		
	좋다	336	3.78 bc	.584		
	매우 좋다	62	3.85 c	.670		

p<.01, *p<.001, a, b, c는 scheff 검정결과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a(b(c)).

직업에서는 회사원과 공무원/교직원, 주부/무직, 기타에 비하여 전문직에서 외향적 도전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7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외향적으로 도전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 추구하고 있었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외향적 도전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중시하고 있었으며, 주거형태가 타가인 경우에 비해 자가인 집단에서 외향적 도전추구 라이프스타일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이 나쁜 집단보다는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은 집단에서 외향적 도전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3.1.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건강추구 라이프스타일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건강추구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모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건강추구 라이프스타일은 성별($t=3.395, p<.01$), 연령($F=7.162, p<.001$), 결혼여부($F=4.255, p<.05$), 거주지($F=4.646, p<.01$), 학력($F=7.951, p<.001$), 직업($F=2.361, p<.05$), 월평균 가구소득($F=7.612, p<.001$), 종교유무($t=-3.638, p<.001$), 주거형태($t=4.929, p<.001$), 가족형태($F=2.868, p<.05$), 건강상태($F=30.76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30대에 비하여 50대와 60대 이상이, 그리고 미혼보다는 기혼이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었다. 거주지에서는 대구와 경북/기타에서 거주하는 집단에 비해 서울과 경기도 거주하는 집단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서울, 경기 거주자들이 건강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더 중시함을 알 수 있다.

학력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이하보다 대학원 재학이상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 집단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영업과 기타보다 전문직, 회사원, 공무원/교직원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7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 추구하고 있었다.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있는 집단이, 타가에 비해 자가가, 부모와 사는 경우보다 부모,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건강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더 중시하였으며, 건강이 나쁘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은 집단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

표 5.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건강추구 라이프스타일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성별	남성	488	3.51	.698	3.395**	.001
	여성	439	3.35	.723		
연령	30대	314	3.30 a	.668	7.162***	.000
	40대	317	3.47 ab	.715		
	50대	171	3.51 b	.726		
	60대 이상	125	3.60 b	.753		
결혼여부	미혼	146	3.28 a	.731	4.255*	.014
	기혼	735	3.47 b	.697		
	사별/이혼	46	3.38 ab	.869		
거주지	서울	277	3.52 b	.629	4.646**	.003
	경기	215	3.51 b	.692		
	대구	387	3.34 a	.739		
	경북/기타	48	3.34 a	.950		
학력	중졸이하	52	3.28 a	.720	7.951***	.000
	고졸	193	3.28 a	.787		
	대졸 대학원재학 이상	539	3.45 ab	.704		
직업	전문직	102	3.48 b	.826	2.361*	.038
	회사원	284	3.48 b	.688		
	공무원/교직원	202	3.50 b	.621		
	자영업	111	3.29 a	.793		
	주부/무직	149	3.44 ab	.671		
	기타	79	3.27 a	.801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미만	48	3.23 a	.734	7.612***	.000
	100-300만원	244	3.28 ab	.701		
	300-500만원	346	3.44 ab	.658		
	500-700만원	175	3.53 abc	.759		
	700-1,000만원 1,000만원 이상	70	3.60 bc	.612		
종교 유무	없다	391	3.34	.714	-3.638***	.000
	있다	536	3.51	.706		
주거 형태	자가	646	3.51	.694	4.929***	.000
	타가	281	3.26	.730		
가족 형태	혼자 살고 있다	92	3.35 ab	.792	2.868*	.022
	부부만 살고 있다	119	3.48 ab	.739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531	3.47 ab	.678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105	3.25 a	.713		
건강 상태	부모, 자녀 모두와 살고 있다	80	3.52 b	.781	30.762***	.000
	나쁘다	47	3.19 a	.830		
	보통이다	482	3.27 a	.654		
	좋다	336	3.61 b	.672		
	매우 좋다	62	3.95 c	.818		

*p<.05, **p<.01, ***p<.001, a, b, c는 scheff 검증결과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a)(b)(c).

3.1.4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여가문화추구 라이프스타일 차이

표 6.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여가문화추구 라이프스타일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성별	남성	488	3.41	.840	.797	.426
	여성	439	3.37	.874		
연령	30대	314	3.46	.813	2.326	.073
	40대	317	3.34	.803		
	50대	171	3.30	.896		
	60대 이상	125	3.49	1.012		
결혼여부	미혼	146	3.48 b	.812	3.001*	.049
	사별/이혼	46	3.12 a	.980		
거주지	서울	277	3.55 b	.786	5.178**	.001
	경기	215	3.40 b	.908		
	대구	387	3.29 a	.823		
학력	경북/기타	48	3.28 a	1.120	22.526***	.000
	중졸이하	52	2.94 a	1.088		
	고졸	193	3.07 a	.813		
	대졸	539	3.47 b	.809		
직업	대학원재학 이상	143	3.69 b	.812	5.119***	.000
	전문직	102	3.66 b	.910		
	회사원	284	3.41 ab	.792		
	공무원 /교직원	202	3.46 ab	.777		
	자영업	111	3.16 a	1.012		
월 평균 가구소득	주부/무직	149	3.37 ab	.813	8.327***	.000
	기타	79	3.16 a	.935		
	100만원 미만	48	3.28 ab	.797		
	100-300만원	244	3.14 a	.866		
	300-500만원	346	3.45 abc	.815		
	500-700만원	175	3.47 abc	.772		
종교유무	700-1,000만원	70	3.61 bc	.898	-2.560*	.011
	1,000만원 이상	44	3.80 c	1.067		
주거형태	없다	391	3.31	.874	4.585***	.000
	있다	536	3.45	.839		
가족형태	자가	646	3.48	.821	1.018	.397
	타가	281	3.19	.902		
	혼자 살고 있다	92	3.40	.934		
	부부만 살고 있다	119	3.48	.956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531	3.37	.828		
건강상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105	3.50	.799	22.678***	.000
	부모, 자녀 모두와 살고 있다	80	3.30	.864		
	나쁘다	47	2.94 a	1.006		
	보통이다	482	3.24 a	.833		
건강상태	좋다	336	3.59 b	.801	22.678***	.000
	매우 좋다	62	3.84 b	.777		

*p<.05, **p<.01, ***p<.001, a, b, c는 scheff 검정결과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a(b/c)).

[표 6]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여가문화추구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

가문화추구 라이프스타일은 결혼여부(F=3.001, p<.05)와 거주지(F=5.178, p<.01), 학력(F=22.526, p<.001), 직업(F=5.119, p<.001), 월평균 가구소득(F=8.327, p<.001), 종교유무(t=-2.560, p<.05), 주거형태(t=4.585, p<.001), 건강상태(F=22.67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사별/이혼에 비하여 미혼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 미혼의 경우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었다. 거주지에서는 대구, 경북/기타보다 서울, 경기에서 여가문화 라이프스타일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이하에 비해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이상에서 여가를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추구하고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100~300만원 미만보다 7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여가문화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더 중시하고 있었고,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있는 집단에서 여가문화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많이 추구하고 있었다. 주거형태가 타가인 경우보다 자가인 경우가 여가문화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중시하고 있었으며, 건강이 나쁘거나 보통인 집단보다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은 집단에서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었다.

3.1.5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안전 및 물질추구 라이프스타일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안전 및 물질추구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연령(F=3.321, 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서는 집단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의 경우 50대에 비해서 30대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30대가 50대보다 보다 많은 물질(재산, 자동차, 주택 등)을 소유하거나 물질적인 소유물을 성공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등 안전 및 물질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안전 및 물질 추구 라이프 스타일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F	p
성별	남성	488	3.63	.702	.140	.889
	여성	439	3.62	.684		
연령	30대	314	3.70 b	.676	3.321*	.019
	40대	317	3.64 ab	.670		
	50대	171	3.50 a	.734		
	60대 이상	125	3.57 ab	.719		
결혼 여부	미혼	146	3.68	.694	.735	.480
	기혼	735	3.62	.692		
	사별/이혼	46	3.56	.720		
거주지	서울	277	3.64	.662	.360	.782
	경기	215	3.60	.692		
	대구	387	3.62	.717		
	경북/기타	48	3.71	.693		
학력	중졸이하	52	3.53	.836	.540	.655
	고졸	193	3.61	.716		
	대졸	539	3.65	.690		
	대학원재학이상	143	3.62	.620		
직업	전문직	102	3.69	.754	1.563	.168
	회사원	284	3.68	.630		
	공무원/교직원	202	3.55	.641		
	자영업	111	3.66	.828		
	주부/무직	149	3.54	.664		
기타	79	3.65	.787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8	3.44	.698	1.935	.086
	100-300만원	244	3.57	.701		
	300-500만원	346	3.66	.674		
	500-700만원	175	3.67	.710		
	700-1,000만원	70	3.74	.624		
1,000만원 이상	44	3.54	.798			
종교 유무	없다	391	3.63	.691	.218	.828
	있다	536	3.62	.696		
주거 형태	자가	646	3.64	.693	.596	.551
	타가	281	3.61	.696		
가족 형태	혼자 살고 있다	92	3.70	.711	2.152	.073
	부부만 살고 있다	119	3.50	.740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531	3.62	.684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105	3.67	.689		
	부모, 자녀 모두와 살고 있다	80	3.75	.647		
건강 상태	나쁘다	47	3.40	.848	1.796	.146
	보통이다	482	3.63	.664		
	좋다	336	3.64	.683		
	매우 좋다	62	3.68	.824		

*p<.05, a, b는 scheff 검증결과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a/b).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보수적 가족추구 라이프스타일은 연령, 결혼여부,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종교유무, 주거형태, 가족형태 및 건강상태별로 집

단 차이를 보였고, 외향적 도전추구 라이프스타일은 학력,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종교유무, 주거형태,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추구 라이프스타일은 모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여가문화추구 라이프스타일은 결혼여부와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종교유무, 주거형태,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안전 및 물질추구 라이프스타일은 연령별 집단 차이가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3.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

3.2.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요인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한 후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 모집단이 2개인 성별과 종교유무, 주거형태는 t-test를 실시하였고, 모집단이 3개 이상인 연령과 결혼여부,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가족형태, 건강상태는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실버타운 선호도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 학력(F=3.571, p<.05)과 종교유무(t=-2.160,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의 경우 중학교 졸업이하에 비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집단이 실버타운을 보다 선호하고 있었고,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종교를 가진 집단이 실버타운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실버타운 선호도는 학력과 종교유무별로만 집단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1(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실버타운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8.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 차이 분석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성별	남성	488	3.27	.844	-1.443	.149
	여성	439	3.35	.800		
연령	30대	314	3.33	.823	1.293	.276
	40대	317	3.33	.779		
	50대	171	3.32	.829		
	60대 이상	125	3.17	.923		
결혼여부	미혼	146	3.37	.821	1.050	.350
	기혼	735	3.29	.832		
	사별/이혼	46	3.43	.692		
거주지	서울	277	3.30	.846	.443	.723
	경기	215	3.28	.862		
	대구	387	3.34	.762		
	경북/기타	48	3.25	1.003		
학력	중졸이하	52	2.98 a	.851	3.571*	.014
	고졸	193	3.33 b	.709		
	대졸	539	3.31 b	.859		
	대학원재학 이상	143	3.41 b	.802		
직업	전문직	102	3.31	.879	.573	.721
	회사원	284	3.36	.754		
	공무원/교직원	202	3.28	.830		
	자영업	111	3.31	.843		
	주부/무직	149	3.23	.828		
	기타	79	3.35	.94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8	3.43	.795	.959	.442
	100-300만원	244	3.28	.775		
	300-500만원	346	3.27	.827		
	500-700만원	175	3.33	.869		
	700-1,000만원	70	3.47	.712		
	1,000만원 이상	44	3.28	1.056		
종교유무	없다	391	3.24	.829	-2.160*	.031
	있다	536	3.36	.818		
주거형태	자가	646	3.31	.863	.033	.974
	타가	281	3.31	.728		
가족형태	혼자 살고 있다	92	3.40	.773	1.592	.174
	부부만 살고 있다	119	3.14	.864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531	3.33	.799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105	3.33	.821		
	부모, 자녀 모두와 살고 있다	80	3.29	.968		
건강상태	나쁘다	47	3.11	.747	2.153	.092
	보통이다	482	3.35	.802		
	좋다	336	3.31	.838		
	매우 좋다	62	3.14	.943		

*p<.05, a, b는 scheff 검증결과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a(b)).

3.2.2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실버타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실버타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결혼여부,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종교유무, 주거형태, 가족형태, 건강상태)을 독립변수로 하고 실버타운 선호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성별과 거주지, 직업, 종교유무, 주거형태, 가족형태는 더미변수화하여 투입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9]에 나타내었다.

표 9.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실버타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실버타운 선호도		
	β	t	P
성별(여성=0, 남성=1)	-.071	-1.879	.061
연령	-.011	-.268	.789
결혼여부(사별/이혼=0)			
- 결혼여부1(미혼=1)	-.032	-.433	.665
- 결혼여부2(기혼=1)	-.046	-.641	.522
거주지(경북/기타=0)			
- 거주지1(서울=1)	-.028	-.381	.703
- 거주지2(경기=1)	-.025	-.369	.712
- 거주지3(대구=1)	.020	.264	.792
학력	.107	2.565*	.010
직업(기타=0)			
- 직업1(전문직=1)	-.026	-.542	.588
- 직업2(회사원=1)	.016	.265	.791
- 직업3(공무원/교직원=1)	-.049	-.839	.402
- 직업4(자영업=1)	.004	.085	.932
- 직업5(주부/무직=1)	-.040	-.746	.456
월평균 가구소득	.003	.071	.943
종교유무(없음=0, 있음=1)	.070	2.013*	.044
주거형태(타가=0, 자가=1)	.003	.079	.937
가족형태(부모, 자녀=0)			
- 가족형태1(혼자=1)	.050	.827	.409
- 가족형태2(부부=1)	-.037	-.741	.459
- 가족형태3(자녀=1)	.037	.616	.538
- 가족형태4(부모=1)	.002	.032	.974
건강상태	-.031	-.901	.368
F	1.316*		
R ²	.080		
Adj R ²	.057		

*p<.05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실버타운 선호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F 통계 값은 1.316으로서 p<.05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²가 .080으로서 실버타운 선호도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8.0%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값이 1.081~5.485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학력과 종교가 실버타운 선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학력은 $\beta=.107, t=2.565, p<.05$ 에서, 종교는 $\beta=.070, t=2.013, p<.05$ 에서 실버타운 선호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 결과에서는 학력이 높거나 종교가 있을수록 실버타운 선호도가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2(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실버타운 선호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3.3 라이프스타일 특성이 실버타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표 10. 라이프스타일이 실버타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실버타운 선호도		
		β	t	P
성별(여성=0, 남성=1)		-.072	-1.898	.058
연령		-.029	-.674	.501
결혼여부(사별/이혼=0) - 결혼여부1(미혼=1)		-.022	-.298	.766
- 결혼여부2(기혼=1)		-.043	-.620	.536
거주지(경북/기타=0) - 거주지1(서울=1)		-.026	-.357	.721
- 거주지2(경기=1)		-.021	-.317	.752
- 거주지3(대구=1)		.019	.254	.799
학력		.081	1.957	.051
직업(기타=0) - 직업1(전문직=1)		-.036	-.750	.454
- 직업2(회사원=1)		.007	.122	.903
- 직업3(공무원/교직원=1)		-.051	-.890	.374
- 직업4(자영업=1)		.003	.070	.944
- 직업5(주부/무직=1)		-.037	-.695	.487
월평균 가구소득		-.015	-.381	.703
종교유무(없음=0, 있음=1)		-.054	-1.534	.125
주거형태(타가=0, 자가=1)		-.010	-.269	.788
가족형태(부모, 자녀=0) - 가족형태1(혼자=1)		.052	.880	.379
- 가족형태2(부부=1)		-.015	-.308	.758
- 가족형태3(자녀=1)		.066	1.098	.272
- 가족형태4(부모=1)		.018	.300	.764
건강상태		-.081	-2.311 [*]	.021
보수적 가족추구		-.090	-2.251 [*]	.025
외향적 도전추구		.073	1.779	.076
건강추구		.144	3.702 ^{***}	.000
여가문화추구		.016	.394	.694
안전 및 물질추구		.112	3.342 ^{**}	.001
F		2.633 ^{***}		
R ²		.121		
Adj R ²		.094		

*p<.05, **p<.01, ***p<.001

라이프스타일이 실버타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라이프스타일(보수적 가족추구, 외향적 도전추구, 건강추구, 여가문화추구, 안전 및 물질추구)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실버타운 선호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0]에서처럼 회

귀모형의 F 통계 값이 2.633으로 p<.001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²가 .121로서 실버타운 선호도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의 전체 설명력은 12.1%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값이 1.092~5.498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건강상태만이 $\beta=-.081$, $t=-2.311$, $p<.05$ 에서 실버타운 선호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라이프스타일 요인 중에서는 보수적 가족추구와 건강추구, 안전 및 물질 추구 라이프스타일이 실버타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실버타운 선호도에 대하여 보수적 가족추구는 $\beta=-.090$, $t=-2.251$, $p<.05$ 에서 부(-)적인 영향을 보인 반면, 건강추구는 $\beta=.144$, $t=3.702$, $p<.001$ 에서, 안전 및 물질추구는 $\beta=.112$, $t=3.342$, $p<.01$ 에서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가족을 추구하는 보수적 라이프스타일을 지닐수록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지만, 건강을 추구하고 안전과 물질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지닐수록 실버타운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라이프스타일은 실버타운 선호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V. 결론

1. 결론 및 요약

최근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저 출산 등의 요인으로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실버산업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래 실버 소비자를 포함하여 서울·경기지역과 대구·경북지역의 30대~60대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라이프

프스타일이 실버타운 선호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라이프스타일과 실버타운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실증분석을 위해 실버타운에 대한 미래 소비자인 30대, 예비수요층은 40~50대와 실수요자인 60대를 조사하였다. 즉, 실버타운에 대한 실수요자인 60대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1946~1954년생), 포스트부머(1955~1964년생), 그리고 베이비부머의 자식세대를 일컫는 에코세대(1965~1974년생)중 30대(1983~1992년생)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서울·경기 지역과 대구·경북지역의 30대~60대의 성인 남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연구가설에 대해서는 가설 1(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보수적 가족추구 라이프스타일은 연령에서는 50대에 비해서 60대 이상에서 보수적 가족추구 라이프스타일의 평균값이 더 높음으로써 60대 이상인 집단이 50대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보수적 라이프스타일을 더 많이 추구함을 알 수 있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에 비하여 기혼과 사별/이혼 집단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 집단 차이가 나타났고, 학력에서는 중학교 졸업이하보다 대학원 재학이상에서 가족을 중시하는 보수적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추구하고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에 비해서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종교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보수적 가족추구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고 있었다.

주거형태에서는 자가가 타가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자가인 집단이 보수적 가족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중시하였고, 가족형태의 경우 혼자 살고 있는 집단에 비해 부부만 살고 있는 집단에서 가족을 중시하는 보수적 라이프스타일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었다. 또한 건강이 나쁜 집단보다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은 집단에서 보수적 가족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더 중시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외향적 도전추구 라

이프스타일은 학력에서는 중학교 졸업이하보다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집단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대학원 재학이상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냄으로써 대학원 재학이상인 집단이 일을 통해 성취감을 크게 느끼고 집에서보다 밖에서의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직업에서는 회사원과 공무원/교직원, 주부/무직, 기타에 비하여 전문직에서 외향적 도전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7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외향적으로 도전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 추구하고 있었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외향적 도전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중시하고 있었으며, 주거형태가 타가인 경우에 비해 자가인 집단에서 외향적 도전추구 라이프스타일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이 나쁜 집단보다는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은 집단에서 외향적 도전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건강추구 라이프스타일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30대에 비하여 50대와 60대 이상이, 그리고 미혼보다는 기혼이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었다. 거주지에서는 대구와 경북/기타에서 거주하는 집단에 비해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서울·경기 거주자들이 건강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더 중시함을 알 수 있다.

학력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이하보다 대학원 재학이상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 집단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영업과 기타보다 전문직, 회사원, 공무원/교직원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7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 추구하고 있었다.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있는 집단이, 타가에 비해 자가가, 부모와 사는 경우보다 부모,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건강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더 중시하였으며, 건강이 나쁘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은 집단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여가문화추구 라이프스타일은 결혼여부에서는 사별/이혼에 비하여 미혼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 미혼의 경우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었다. 거주지에서는 대구와 경북/기타보다 서울·경기에서 여가문화 라이프스타일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이하에 비해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이상에서 여가를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추구하고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100~300만원 미만보다 7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여가문화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더 중시하고 있었고,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있는 집단에서 여가문화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많이 추구하고 있었다. 주거형태가 타가인 경우보다 자가인 경우가 여가문화추구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중시하고 있었으며, 건강이 나쁘거나 보통인 집단보다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은 집단에서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었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안전 및 물질추구 라이프스타일은 연령($F=3.321, 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서는 집단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의 경우 50대에 비해서 30대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30대가 50대보다 보다 많은 물질(재산, 자동차, 주택 등)을 소유하거나 물질적인 소유물을 성공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등 안전 및 물질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보수적 가족추구 라이프스타일은 연령, 결혼여부,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종교유무, 주거형태, 가족형태 및 건강상태별로 집단 차이를 보였고, 외향적 도전추구 라이프스타일은 학력,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종교유무, 주거형태,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추구 라이프스타일은 모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여가문화추구 라이프스타일은 결혼여부와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종교유무, 주거형태,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안전 및 물질추구 라이프스타일은 연령별 집단 차이가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2-1(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실버타운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 차이는 학력의 경우 중학교 졸업이하에 비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집단이 실버타운을 보다 선호하고 있었고,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종교를 가진 집단이 실버타운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실버타운 선호도는 학력과 종교유무별로만 집단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1(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실버타운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2-2(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실버타운 선호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해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학력과 종교가 실버타운 선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설 2-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3(라이프스타일은 실버타운 선호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해서는 가족을 추구하는 보수적 라이프스타일을 지닐수록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지만, 건강을 추구하고 안전과 물질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지닐수록 실버타운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파악하여 실버타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입주의를 유도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기업의 마케터 입장에서는 실버타운에서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설계하고 소비자의 실버타운 구매를 위한 촉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실버타운에 대한 소비자를 목표시장으로 포지셔닝을 수립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실버타운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각 세대별 라이프스타일의 트렌드를 분석하여 시장세분화 조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고려요인을 제시

하였다는데 논문의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표본 집단은 기존 연구의 특정 지역, 특정 계층, 특정 집단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경기지역과 대구·경북지역으로 확대는 하였지만 전체 모집단의 성향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개인적 변수에 한정되어 있으며, 상황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동일한 성격을 지닌 소비자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개인적 변수와 함께 상황변수 분석에 포함시킨다면 보다 정교한 연구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대상 변수들과 설문문항은 기존의 연구들에 사용되었던 척도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을 고려한 다양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수인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향후의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라이프스타일과 함께 노후준비도, 가족가치관, 실버타운 입주요인, 실버타운 제공서비스를 함께 고려하여 실버타운 선호도에 미치는 변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실버타운 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 유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향후에는 양적 연구 외에도 질적 연구와 인터뷰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p.75-77, 2012.

- [3] http://kostat.go.kr/po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287091
- [4] 유용식,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구성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0호 p.194, 2009.
- [5] S. J. Levy, “Symbols for Sale,” Harvard Business Review, pp.117-124, 1959.
- [6] W. Lazer, “Life Style Concepts and Marketing,” Toward Scientific Marketing, Stephen Greyser, ed.(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pp.140-151, 1963.
- [7] K. B. Monroe and J. P. Guiltman, “A Path-Analytic Exploration of Retail Patronage Influen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2, pp.19-28, 1975(6).
- [8] J. F. Engel, R. D. Blackwell, and D. T. Kollat, “Consumer Behavior,” 3rd ed., Illinois: The Dryden Press, pp.414-416, 1978.
- [9] J. F. Engel, R. D. Blackwell, and D. T. Kollat, “Consumer Behavior,” 3rd ed., Illinois: The Dryden Press, p.174, 1978.
- [10] 고영준, 노인의 생활체육참여 동기와 라이프스타일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66, 2008.
- [11] 광종형, 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건강기능식품구매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45-46, 2008.
- [12] 신명혜,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용의사 결정요인,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 2008.
- [13] 김완래, 예비노인층의 실버타운 선호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65, 2008.
- [14] 우주택,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주택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 2009.
- [15] 김경숙,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이용의사 결정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

참 고 문 헌

- [1] D. U. Cogwill, *Aging around the world, The Ageing of population and Social Implication*, United Nations, 1986.
-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p.3, p.32, p.38,

원 박사학위 논문, p.5, 2010.

- [16] 함영희,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행위관련 인자·감정이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9, 2011.
- [17] 최혜련,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참여가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5, 2011.
- [18] 신명혜,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용의사 결정 요인*,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9, 2008.
- [19] 김완래, *예비노인층의 실버타운 선호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40-141, 2008.
- [20] 우주택,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주택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5, 2009.
- [21] 김경숙,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이용의사 결정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55-58, 2010.
- [22] 이학식, 임지훈, *SPSS 16.0 매뉴얼*, 법문사, 2009.
- [23] 이군희, *사회과학연구방법론*, 법문사, 2007.

하 규 수(Kyu-Soo Ha)

정회원



- 1998년 6월 : 미국 Touro 법과전문대학원 졸업 (J.D.)
 - 1999년 6월 : 미국 Georgetown 법과전문대학원 졸업(LL.M.)
 - 1998년 8월 ~ 현재 : 미국 뉴욕 주변호사·미국 연방변호사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 2002년 2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창업, 벤처경영, 전략경영

저 자 소 개

채 상 균(Sang-Kyun Chai)

정회원



- 1991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경영학사)
 - 2006년 2월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경제학 석사)
 - 2012년 8월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사회복지학 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박사과정)
- <관심분야> : 마케팅, 소비자행동, 벤처·전략경영, 사회복지